

여수는 버스킹 천국... 밤바다엔 로맨틱이 흐른다

4~6일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울랄라세션·데이브레이크 등 참가
버스 시티투어하며 공연 감상도
음악소리 멈추지 않는 낭만도시



여수가 훌륭한 공연장이 됐다. 도심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도심 곳곳에서는 악기와 마이크, 소형앰프만으로 거리에 선 '젊은 버스커들'의 끊이지 않는 버스킹(거리공연), 걸음을 멈춘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버스커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나온다.

버스에서도, 바닷가, 항구에서도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로맨틱한 불빛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낭만도시'시 여수를 더 반짝이게 한다.

◇국제 버스커들, 여수 밤바다를 무대로=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리는 오는 4~6일 여수 바닷가는 국내·외 버스커들의 낭만 가득한 무대로 바뀐다.

종포해양공원 산책로를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는 국내 8개팀 25명, 국외 8개 팀 27명 등 16개팀 52명의 버스커들의 감미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오후 7시~밤 10시까지 끊이지 않는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울랄라세션, 신현희와 김루트, 데이브레이크 등 가수 10팀과 해외 버스커들의 특색 있는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낭만버스킹 가득한 도심=여수처럼 도심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는 젊은 음악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도 드물다. 종포해양공원을 중심으로 하멜전시관과 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옛 삼양사 산책로, 춤추는 빛 광장 산책로, 선어시장 건너편, 진남상가 오거리, 돌산공원 준공탑 등을 찾으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거리문화공연으로 기획, 버스커들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한몫을 했다.

'낭만버스킹'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458개팀이 공연을 열었고 16만84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즐겼다. 올해도 125개팀이 노래로 시민들과 여행객들을 만났다.

◇버스에서 즐기는 공연=버스로 시티투어를 돌면서 공연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른바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다. 시티투어에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것으로,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7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버스를 타고 이순신광장을 출발, 소호동동다리~돌산대교~거북선대교~종포해양공원 등을 돌아보는 동안 노래와 함께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거문도 녹산곶 일대에 전해오는 인어 '신지끼', 악공정(조선시대 음악 담당 기관) 등 여수 역사와 설화를 접목했다. '신지끼'는 전설 속 인어로, 큰 풍량이 일어나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이를 섬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가 버스킹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며 "버스킹, 밤바다, 야경과 낭만을 활용해 여수만의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매일 펼쳐지는 거리공연을 즐기는 관광객들. <여수시 제공>



지난해 열린 불꽃축제 전경. <여수시 제공>

11~12일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오세요

여수 밤바다를 거닐며 공연을 즐기다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불꽃쇼도 즐길 수 있다. 여수시가 오는 11~12일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여는 '제2회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통해서다.

올 축제 주제는 '여수의 밤, 그리고 별'로,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사이 해상에 바지선을 띄워 11가지 주제 음악에 맞춰 밤바다를 물들일 예정이다. 불꽃과 조명·레이저가 조화를 이룬 멀티미디어 불꽃 쇼를 위해 7억원을 들었다. 지난해도 26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화려하다. 파이어댄스 공연도 곁들여진다.

첫날에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뮤지컬 불꽃쇼, 둘째날에는 불세, Big-O, 그랜드 피날레 등의 공연이 열린다.

특히 유럽 테마파크 등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연출방식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불꽃연출이 가능한 기구를 도입, 레인보우 불꽃 등 볼거리를 강화했다는 게 여수시 설명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립국악단과 국악관현악단 청소년들의 어울림 공연 장면. <여수시 제공>

여수시립국악단 재능기부... 청소년 국악관현악단과 1~4일 어울림 공연

여수시립국악단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선다.

여수시립국악단은 1일부터 4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지역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제4회 청소년 국악관현악 캠프' '어울림'을 연다.

이번 캠프는 여수지역 초·중학교 국악관현악단들과 여수시립국악단이 함께 연습, 합동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화양초, 여도초·중, 여수여중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한다. 권인홍 여수시립국악단무장을 비롯, 국악단원 전원이 재능기부로 청소년들의 연주 지도

에 나선다.

여수시는 전통 음악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권인홍 여수시립국악단 단무장은 "지역 국악 꿈나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키우고 친구들과 음악을 주제로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립국악단은 지난 2000년 7월 국악관현악·창악·무용·타악 부문으로 창단,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의 거문도 뱃노래 공연.

5~7일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섬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제17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 일대에서 열린다.

관광해설사가 거문도 구석구석을 돌며 거문도의 역사, 섬 주민들의 생활방식 등을 알려주는 '골목길 걷기 투어'는 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거문도 해풍속·수산물 홍보관, 역사문화관 등 전시관도 문을 열어 섬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맨손 활어잡기와 바닷가 고동잡기체험, 해풍속 힐링체험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해놓았다.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거문도 뱃노래와 시립국악단 축하공연, 은빛 가요제 등도 펼쳐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준 높은 맞춤형 관광상품을 마련해 전국 최고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